

# 장사 잘하고도 '의견거절'... '회계'에 우는 벤처기업

**회사의 회계** ⑥ '의견거절'에 경영 휘청 (글)

DSK, 사업 불확실 우려 확산  
엘로모바일, 연내 기업공개 힘들 듯  
파티게임즈, 750억 투자유치 좌초



받아든 기업들은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국내 대표 강소기업으로 불렸던 디에스케이(DSK)는 올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자회사 프로텍스와 손자회사 메디카코리아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속 기업을 통한 자금대여, 법인인감 사용 및 자금집행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디에스케이의 창업 이래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해 디에스케이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0% 급증한 121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사업 호황에 승승장구하던 디에스케이가 의견거절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디에스케이 관계자는 "소수에 의한 잘못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정상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건실한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기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디에스케이 1공장.

/디에스케이

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신규 주주 등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두번째로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에 선정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엘로모바일 역시 이번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일부 온·오프라인 연계(O2O) 숙박업 계열사 관련 주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엘로모바일은 최근 자회사 케어랩스의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연내 상장을 목표로하고 있었다. 정부는 엘로모

바일을 예로 들며 국내 유니콘 기업에 2022년까지 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설립 4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국내 최초 '벤처연합' 사업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잇따랐다.

하지만 엘로모바일의 감사결과로 연내 기업공개(IPO) 목표를 현실화하기 힘들어졌다. 엘로모바일은 관련 서류를 재검비해 재검사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3년 내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파티게임즈는 '감사의견 거절'로 약

750억원의 투자유치가 좌초됐다. 파티게임즈의 모회사인 모다가 실시하는 7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향후 재검사를 통해 상장폐지 막은 것만으로도 회사 측 입장이지만 그 기간동안 신규 투자유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에 게 재검사는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재검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일부 기업은 모든 직원이 하루종일 재검사를 위한 서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선 회계감사가 간간해지는 만큼 기업에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경영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내부의 회계적 역량, 절대적 인력이 부족해 회계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회계 감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서 이랜드·한라 등 5개 계열 제외 “경영진 사회물의뎌 재무평가때 불이익”

금감원, 31곳 주채무계열 선정  
신규편입 없고 평가기준 개정

올해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31개가 선정됐다. 지난해 36개에서 성동조선·아주·이랜드·한라·성우하이텍 등 5개 계열이 제외됐다. 신규 편입은 없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도덕적 일탈 등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일감몰아주기, 해외 계열사의 차입금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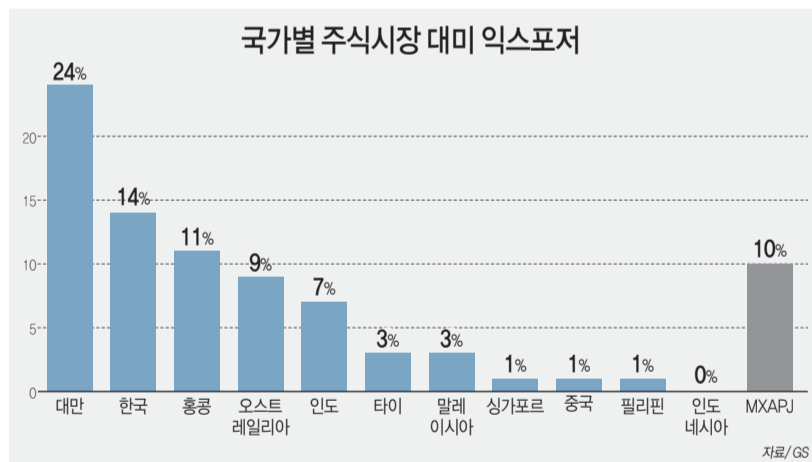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차입금액·빚)이 1조5166억원 이상인 31개 계열기업군을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신용공여액은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매년 전년 말 신용공여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올해는 신규 편입없이 5개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아주는 자회사이던 아주캐피탈이 지난해 계열 분리되면서 채무가 줄었고, 성우하이텍과 한라, 이랜드는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선정 기준액



을 밑돌았다. 성동조선은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위 현대중공업과 6위 롯데의 순위가 바뀌었다.

31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제도도 바뀐다.

그간 재무정보에 기반한 정량평가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시장질서 문란행위, 해외사업 위험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이 이번엔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 계열사 차입금 등도 부채비율 산정시 포함한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계열사 별도 재무제표 합산·조정방식인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올해 하반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방통위, 모바일앱 결제 피해 집중점검

위반행위 심각할때 행정조치 검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등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통신위원회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방통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대해 15일부터 한달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윈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 앱 중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고려한 상위 50개 앱이다.

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

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고지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루어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인 기자 silkni@

###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김민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